

중국서 대규모 세계불교포럼

4월 13~16일 '세계 화합은 마음에서...' 주제로 한국지도자 40명 등 50여국 2000명 참가 예정

세계 50여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중국에 모여 '세계 화합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를 주제로 세계불교포럼을 연다.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저우산(舟山)과 항저우(杭州)일대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불교포럼'은 '중국불교협회'와 '종교와 문화교류를 위한 중국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세계 50여 개국 2천여명의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도 한국불교총연합회(이하 종단협) 주관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20여 종단 불교지도자 4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은 "이번 행사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그동안 억압적이었던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세계적 불교행사"라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후진타오 국가주석 취임 이후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고 다양성을 갖게 될 때 균형 잡힌 사회가 건설된다'는 캠페인

을 줄곧 전개해왔다. 그러나 유독 종교에 대해서는 통제가 많아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측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불교포럼은 중국 내 종교 자유 특히 불교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행사 실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행사 기간중 한국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이 축사를 한다. 또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태고종 교무부장 법안, 천태종 교육부장 용암 스님 등이 '불교의 평화적 사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도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과 총지종 수석연구원 화평 정사가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연설한다.

포럼 이틀째인 14일에는 분과토론, 사찰탐배, 각국의 불교대표자들이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친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15일에는 저우산으로 자리를 옮겨 '끝없는 마음의 등불이 밤을 밝힌다'를 주제로 한 연등 행사와 세계평화기도 행사 가 열리며, 16일에 폐막식을 갖는다. 이번 행사 기간중 한국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이 축사를 한다. 또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태고종 교무부장 법안, 천태종 교육부장 용암 스님 등이 '불교의 평화적 사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도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과 총지종 수석연구원 화평 정사가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연설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北 국보급 문화재 6월 南서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진우)이 올 6월 '북한 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북한 조선중앙력사박물관(관장 김송현)과 함께 남북 박물관 간의 첫 번째 교류 사업으로 이번 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고 3월 24일 발표했다.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 90여 점이 출품될 예정인 이번 특별전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북한 문화재가 처음으로 함께 전시된다.



3월30일 보물로 지정 예고된 양산 통도사 삼층석탑.

통도사 삼층석탑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3월 30일 경남 양산 통도사 삼층석탑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높이 3.9m, 기단폭 1.8m의 통도사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일반형 삼층석탑으로 일부 균열 또는 결실 부분이 있으나 상륜부를 제외하고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층 기단의 각 면에 우주와 팽주를 생략하고 안상을 조각했고 육각석의 양식으로 전각의 경쾌한 반전

과 낙수층이 있다는 것이 통도사 삼층석탑의 가장 큰 특징.

이같은 특징은 전체적인 규모와 양식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9세기 후반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30일 동안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서산마애삼존불상 보호각 벽 철어

서산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의 보호각 벽을 허물었다고 3월 27일 밝혔다. 다만 전각 지붕과 기둥은 빗물을 막으려고 그대로 남겨놓았다고 부연했다.

1965년 설치된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보호각은 불상 주위에 습기를 차게 해 그동안 보호각을 개방한 뒤 통풍과 자연채광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호각의 벽을 허물면서 채광이 불



허문 보호각 벽 사이로 서산마애삼존불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완전히 이뤄져 '백제의 미소'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이분회 행정관은 "부족한 채광은 추후에 보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동국대-서울대 학술교류 상호 학점인정 등 협정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서울대와 학술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3월 27일 신라호텔에서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 △교직원 상호교류 상호 이용 △국제협력사업 공동 수행 등 교육·연구·

사회봉사 분야 전반에 걸쳐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측은 "불교를 비롯한 동양학과 인문학분야에서 독특한 학문적 전통과 역량을 쌓아온 동국대와 서울대의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타 학문분야에도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양교간 실질적인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제도적 살인, 사형제 폐지하라”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명운동 전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4일 국회 법사위 주최 공청회에 앞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사형제 가 범죄 억제력과 관련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사형제를 고집하는 것은 교정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며 "살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숙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불교운동본부대표 지관 스님은 3월 30일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불교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는 "사형제도가 존속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이 나서서 살인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는 앞으

로 서명운동 전개, 국회 법사위에 사형제도 폐지 촉구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참여불교 교단자정 센터 헌법 스님 자적심사 요청

참여불교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3월 30일 헌법 스님의 자적심사를 요청하는 심판청구서를 조계종 중앙종회 법규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회에 접수시켰다. 교단자정센터는 청구이유에 대해 "헌법 스님은 중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중앙선관위에서 당

선을 확정공고한 것은 명백히 중헌 중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2차 회의에서 헌법 스님의 자격이 이상이 없다고 결정한 사항과 153차 회의에서 당선을 확정공고한 사항에 대해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전국 전통사찰·숲 생태 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3년째 전국의 전통사찰과 숲을 돌며 생태를 모니터링해온 맑고향기롭게 전통생태모임이 2005년의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자료집을 펴냈다. 자료집에는 안성 석남사, 김천 청암사 등 10개 사찰의 생태모니터링 결과가 실렸다. 박봉영 기자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10·27법안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10·27법안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이하 법안진상규명위)가 1기 활동을 마감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한 1기 법안진상규명위는 당초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법안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시급한 피해자 조사와 피해접수가

겨우 7건에 불과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정부측 자료 확보 실적이 거의 없었다. 1기 법안진상규명위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실무진의 적극성 부족으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했고,

법안진상규명위의 슬픈 자화상

군 과거사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한계를 인정했다. 1기의 마지막 회의가 된 3차회의마져 마감시점인 2월을 넘겨 3월 28일 열린 것도 1기 법안진

상규명위의 슬픈 자화상의 한 단면이다. 이날 법안진상규명위는 2기 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는 7월부터 10·27법안을 포함한 군 과거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10·27 법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불교계는 진상규명은 커녕 2기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27 진상규명 누구를 위한 일인가?

■박봉영(취재부) 기자

영산재 전수 조고기념 공연

4월 11일 중앙박물관 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성 기념 공연을 4월 11일 오후 4시·7시 30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장엄미를 펼친다.

지난해 11월 구해 스님이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동주(범패)·동희(범무)·경암 스님(장엄)이 각각 전수교육조교가 된 것을 기념하는 공연이다. 011-520-7403 김지연 기자

성명서

지난 3월 9일 교계언론에서 영축총림 방장후보자가 "방장 후보 사퇴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고,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은 "대중공의를 모아 다시 방장을 추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 납은 영축총림 방장후보를 사퇴한 사실이 없다. 3월 7일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에게 총무원장 스님께 전하라고 한 글은, 교계신문에 회자된 바와 같이 당시의 심경과 소회를 적은 것이지, 방장후보 사퇴의사 표명이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글에는 사퇴서라는 제목도 사퇴내용도 없다. 중앙종무기관과 언론사에서 누군가가 그 글의 내용을 왜곡 또는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후보사퇴를 발표한 중앙종무기관 관계자가, 본 납 또는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스님에게 사퇴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하나,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스님을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온 관계자는 오늘까지 아무도 없었다. 또한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이나 통도사 종무소 7직도, 방장후보사퇴와 같은 중요사실이 언론에 왜곡 보도되었으면, 사실 확인을 통해 중앙종무기관과 언론사에 바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3월 10일 본 납이, 후보사퇴 정정 보도를 위해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을 찾았으나, 주지직무대행은 방장후보 사퇴 사실이 언론에 발표된 직후부터 그 행

선지와 행적을 알 수 없었고, 통도사 종무소마저 그 막중한 소임을 방기하였던 것이다. 본 납은 방장후보 이전에 총림원로이자 부방장(수좌)이다. 후보를 사퇴할 의향이 있었으면, 방장후보로 추천한 총림대중에게 사퇴사실을 먼저 알렸을 것이고, 방장후보로서 총림 중요 현안을 논의한 후, 거취를 정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영축총림방장 후보사퇴 보도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었고, 조작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축총림 방장후보사퇴 조작은, 제방총림 방장과 원로스님들에게 작금의 중단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04년 4월 총림설치법이 총림법으로 개정·공포되면서 안거가 방장자격 기준으로 정해졌고, 현재 중앙종회 중헌·중법개정특위에서는, 중헌이 규정한 방장의 총림주지 추천권을 산중총회에서 선출토록 개정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과 영축총림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사퇴 발표에 대한 일체의 의혹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법과 총림의 호계절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길 바라며, 본 납도 금번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영축총림 산중회의에서 총림방장후보의 거취를 정할 것을 천명한다.

불기2550(2006)년 3월 28일

영축총림 통도사 草宇 합장